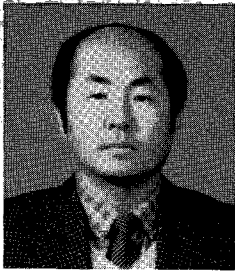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유비무환 (有備無患)



배 성 황
(주)삼화농원 대표

사람이 살다보면 사람의 반사기능 같은 신체적인 운동과 같이 무심코 지나가는 일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일상 생활 자체 하나 하나가 외적 자극

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사작용을 의식, 무의식중에 되풀이되는 것이다.

일상 생활이 시간 개념에서 보면 계획(약속)-준비-일(업무)-평가-기억(저장)의 연속이고 이런 생활이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역사로 기록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매사 하나 하나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성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충분히 하고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되는 것 같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절반은 성공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유비필성(有備必成)의 의미로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각종 만남에서도 계획된 시간보다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자료나 계획으로 임한다면 무계획 하게 쫓기고 시간 여유도 없이 일을 하는 것과는 결과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인이 준비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회사에 사훈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여론 때문에 충분히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제정된 사훈 3가지 가운데 그 중 한가지가 '미리 준비 하자'였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 교육을 하거나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느껴보면 즉흥적

인 사훈이었으나 오랫동안 축산업을 하는 회사의 사훈으로는 지금 생각해도 적절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된다.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든지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자부하면서 물질적으로는 우리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보다는 분명히 풍요로와진건 사실이다. 이에 걸맞게 정신적으로는 보다 안정하고 준비심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느껴진다.

양계 산업에서도 보다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리, 정돈된 농장의 배치를 기본으로 지침서에 의한 사양관리, 타 농장과는 차별화된 기술 축적 및 상품의 생산이 쌓여가면서 발전할 수 있으며 국제 경쟁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축산업중 가장 모범적으로 정부의 도움 없이 선도적으로 발전해 오던 양계산업이 상대적으로 타축종에 비하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하면서 전 양계인이 낙오자 없이 보람있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규모나 시설 수준이 각 농장마다 다르지만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양계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농장의 시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설물, 공구의 정리 정돈과 매사를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농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양계 선진국의 농가에 비하여 우리는 효율적인 농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계획성 있는 입식, 출하, 농장 운영에 관한 전

문지식의 습득, 지침서에 의한 관리, 기록, 평가 등 프로 양계인이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려운 현실이 아니겠나.

최근 양계 협회에서도 양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정책개발 및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이 전 양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건의되고 입안이 되어 현실적으로 산업의 골격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양계인에게는 사업계획과 연관되고 계획이 충분한 준비심과 연결이 되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또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각 단계에서 선진농장과의 품질, 생산비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유리한 상품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수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Belgium에서부터 시작된 다이옥신 파동으로 불거져 나온 식품의 안전성 문제도 소비자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이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HACCP개념의 도입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자신이 생산하는 산물을 차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슬기와 유연성을 보이는 것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것에 대비를 하는 것도 장래에 대한 준비심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축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Animal Welfare 즉, 모든 가축을 집약적인 사육방식을 벗어나 자유스럽게 사육하는 것을 골격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양계산업의 변화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준비하여야 할 최근의 변화이다. **양계**